공석된 총무원장…법화종 정상화 기로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
당선무효·직무집행 정지돼
종정인 도선 스님, 3월 31일
원장 서리에 혜문 스님 임명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원이 자격 논란이 거셌던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무원장이 또다시 공석이 됐다. 법원 결정시까지 거암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을 보류했던 종정 도선 스님은 가처분 인용 직후, 사태수습을 위해 경주교구원장 혜문 스님을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총무원장 도성 스님의 법정구속 이후 지속된 법화종 혼란이 이번에는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종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은 3월 31일 경주교구원장 혜문 스님을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했다. 도선 스님은 공문을 통해 "제20대 총무원장 당선인 거암 스님에 대한 임명을 중지하고 종법(총무원법) 제9조에 의거해 혜문 스님을 서리로 임명한다"며 "6개월 간의 서리 설치기간 동안 제20대 총무원장이 중대한 하자 없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해 종단 혼란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 달라"고 하달했다. 원로원과 중앙종회, 각 교구종무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를 임명함에 따라 거암 스님 직무정지 이후 공백상태가 된 법화종 총무원은 서리 체제로 전환해 종무행정 및 제20대 총무원장 선거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무원장 서리 임명에도 법화종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혜문 스님이 3월 31일 법화종 총무원청사를 방문해 서리 임명 사실을 공표하고 인수인계를 공식 요청했지만, 기존 집행부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혜문 스님은 이날 "직무집행이 정지됐음에도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간주하겠다"며 총무원 청사 퇴거 요청과 함께 문서 파괴 및 서류 유출·반출 행위가 있을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청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종도들에게 발송된 문자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거암 스님측 집행부 대표 송원(정창수)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며, 성운 스님이 입법부, 송원 스님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됐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종헌종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조직인데다, 위원장 중 한명의 전과기록과 2020년 하반기까지 이중승적을 유지했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지성 스님(대구 선불사 주지)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법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중앙종회의장이 위원장인 것은 말도 안된다"며 "회의에 참석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성 스님은 혜문 스님의 서리 임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혜문 스님이 선거관리위원으로 거암 스님의 선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혜문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심사를 보다 명확히 해 막았어야 할 현 사태를 막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책임을 통감해 당선인 집행부 참여를 고사했었고 서리직 역시 고사했지만, 책임은 혼자 참회하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종정 예하의 무거운 가르침에 발심하게 됐다"고 참회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종정예경실은 거암 스님에 대해 종정 스님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쪽방촌에 전해진 자비의 마스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월 30일
영등포 쪽방촌에 마스크 전달
잡매니아 10만장 기부해 진행
코로나 방역 기부 최대 규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신종철 잡매니아 대표가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어르신, 마스크를 안쓰셨네요. 없어서 그러신가요?"

"없어요.."

"어르신, 이제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3월 30일, 방역 사각지대인 쪽방촌에 마스크가 전달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은 3월 30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마스크 전달식과 함께 직접 쪽방촌을 누비며 마스크를 전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총 10만장으로 경호 경비서비스 업체인 잡매니아(대표이사 신종철)가 기부한 것이다.

불자인 신종철 잡매니아 대표이사는 "공사현장 경비 등을 맡는 특성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동안 20년간 쪽방촌을 도와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마스크를 지원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보인 스님과 신종철 잡매니아 대표이사가 찾은 쪽방촌은 한평 남짓한 곳으로 모두 마스크가 없다고 했다. 구청 등에서 마스크를 조금씩 지원하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이들에겐 마스크를 구하는 것 또한 일이었다.

마스크 박스가 쌓인 곳에는 쪽방촌 주민 6~7명이 나와 나눠주는 것이냐며 관심을 표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거나, 빨아서 쓸 수 있는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박부득 쪽방도우미봉사회 팀장은 "같은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없기에 코로나 감염 등이 걱정 됐다"며 "잡매니아에서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 방역 기부로는 최대 규모라며 감사를 표했다.

보인 스님은 "어려울수록 나눔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내줘 우리 사회가 밝음을 지향해 가는 것 같다. 오늘 기부받은 10만장은 복지재단에서도 큰 힘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어려운 곳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는 쪽방촌에서 급식봉사 등을 하는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광진노인보호센터 등 8곳에 배분돼 소외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김선옥 신임 원장이 4월 2일 취임식에서 불교여성개발원기를 흔들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옥 제11대 원장 취임

4월 1일 새 집행부 구성해
포교원과 갈등 불씨 '여전'
'정관 개정' 화합조건 제시
"시간두고 논의 진행할 것"

불교여성개발원 제11대 원장에 김선옥 前(사)지혜로운여성 이사가 취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1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김선옥 신임 원장은 "조계종 포교원과의 관계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서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여성개발원의 전국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방침을 밝힌 김선옥 원장은 "'나' 보다는 '우리'란 말을 기억하고 모두 큰 마음이 되어 '우리' 되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의 공동목표인 지혜롭고 자비로운 단체가 되어 불법 확산과 불교여성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부원장 임명장 전달을 시작으로 새로운 임원진도 꾸려졌다.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 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종단과 화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임원장 후보의 포교원 예방 자리서 2019년 4월 이사회서 결의한 정관 개정과 원장 선출이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갈등해소 방안으로 6개월 내 정관의 원상회복을 공표할 것을 불교여성개발원에 전달한 상태다. 불교여성개발원 제10대 원장 선출과정에서 정관 개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정관 원상 회복부터 이뤄져야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 31일 이사회 안건 논의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서 정관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공식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단체들 동국대 장학·발전기금 쾌척

월주 스님 등 학교, 병원에 기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스님과 단체들의 기부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3월 26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회의실에서 병원발전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월주 스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모든 의료진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다. 작지만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해사 조실 법타 스님은 3월 24일 학교를 찾아 동국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기부는 올해 1학기에 동국대 사찰경영최고위과정 강의를 하게 된 법타 스님이 수강생들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

(사)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은 동국대 재학생 봉사단체인 참사랑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500만원을 3월 24일 기부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3월 26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 지역 문화재 발굴기관인 (재)춘추문화재연구원(원장 박진)은 3월 25일 지역 고고학 인재 양성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전공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고고미술사학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